

식탁 공동체를 통한 영적인 치유와 성장
: 가르침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신재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Jaejin Sh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 CENTERED ON BIBLICAL TEACHINGS AND STORYTELLING

Jaejin Shin

Incheon, Korea

The Bible is full of stories of God and Jesus, who are storytellers, so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God's original will in the Bible to the listener, it is effective to convey it through God's method of storytelling. In addition, our mission is to establish God's kingdom as a place of equality and love through the table community where Jesus in the Bible spent time with the marginalized.

This paper studies storytelling to fulfill this mission, proves its effectiveness, and studies how to effectively convey the Bible. To prove this, we will learn how storytelling is done through God and Jesus in the Bible, and study what teachings God gives us in it so that we can become participants in God's story that God tells us through His Word.

In addition, we will look for the basis of the table community that Jesus alway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ible and find out what he wanted to accomplish through the table community. Through this study, we will find Jesus' theology and teachings in the table community and ultimately achieve the kingdom of God that he wanted to accomplish through them. Furthermore,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healing and

restoration in God's story and Jesus' table community, and contributes to achieving healing and restoration through the table community that we currently want to practice.

The research method is to study storytelling and table community through literature, and to implement practical research, we adopted digital storytelling that is not limited by time and space, and tried to create various contents using the platform called YouTube. Based on this study, we plan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and highlight the strengths to more effectively create a table community through the storytelling of the Bible and develop healing contents for the accomplishment of God's kingdom.

국문초록

식탁 공동체를 통한 영적인 치유와 성장 : 성경의 가르침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신 재 진

인천, 대한민국

성경은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본래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을 청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인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성경 속의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던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평등과 사랑의 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여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것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스토리의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신 식탁 공동체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으셨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목표로 하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식탁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신학과 가르침을 찾아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뤄나가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가 하나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찾고, 현재의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데 기여한다.

연구 방법은 스토리텔링과 식탁 공동체를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며 실질적인 연구의 실행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채택하여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식탁 공동체를 이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치유의 콘텐츠를 만들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 목적과 의의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스토리텔링	8
A. 용어에 대한 고찰	18
B. 성경의 가르침과 스토리텔링	13
C. 디지털 스토리텔링	43
III. 식탁 공동체	48
A. 식탁 공동체란	48
B. 성경 속 식탁 공동체를 통한 가르침	67
IV.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 콘텐츠 구성의 실제	87
A.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식탁 공동체를 접목할 플랫폼과 콘텐츠 선정	87
B. 먹방 스토리텔링과-맛집이 넘치는 교회	94
C. 성경 속 음식 스토리텔링-food in the Bible	101
D.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 콘텐츠 구성계획과 프로그램	111
V. 결론	115
A. 요약 및 평가	115
B. 제언과 결론	116

참고문헌	119
------------	-----

감사의 글

끝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시작하게 된 이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셔서
연약한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인도하셔서 이
과정을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늘 눈물의 기도로 평생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 강정화
목사님,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늘 저의 학업을 응원하고 기뻐하신
아버지 신석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생을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준 언니
신재연, 배연수 형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엄마를 늘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착한 딸들 이라희, 이채희에게도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가족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늘 여러가지 상황을 배려해주신 풍성한교회 조영성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늘 힘내라고 도와주시고 동역해 주신 박미진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 옆에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30년지기
친구 진정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어려울 때 너무나 큰 도움과 힘이
되어주었던 최민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 전합니다. 또한 늘 사역의 고민과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준 친구 이소희, 김하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변함없이 응원하며 함께 동역해 준 정대현, 강전미 부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바라보게 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과 늘 열정적인 강의와 성경의 넓은 시야를 열게 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면접 보던 처음 그때 부터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버지처럼 늘 도와주시며 방황하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저의 영원한 멘토 김영래 교수님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신 재 진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최초의 스토리텔러는 하나님이셨다.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스토리리스너가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심지어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왔으며, 이것은 객관적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분석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75% 이상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전을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달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왔으며, 이런 사실은 어쩌면 성경이 다시금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야 본연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고무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과제이자 사명이다

현재의 성경은 분석이나 연구라는 프레임을 쓰고 그것이 마치 진리를 찾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채 본래의 스토리를 잃어버리고 문자의 한계 안에 갇혀 하나님의 특별한 스토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가르침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 요구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 예수님이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눴던 장소가 식탁이었음을 동시에 감안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식탁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시며 이야기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음식 뿐 아니라 삶을 나누셨으며 식탁 공동체를 형성해 공동체를 확대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해지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과거의 스토리가 과거에만 머물러서 오래된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스토리가 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의 스토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식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서는 단순히 음식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도 먹고 특별한 스토리를 나누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치유와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식탁 공동체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채워지고 물리적으로 교제하는 공간으로만 한정짓기

보단 우리의 영을 채워주는 장소로서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하는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곳이 가장 이상적인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식탁 공동체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미디어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소를 제공하며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분명 감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자와 스토리텔러의 상호작용을 얻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식탁이 차려져야 할 것이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스토리텔링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식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과 연출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스토리텔링은 성경의 스토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녹여내고 그것이 참여자에게 자신의 삶으로의 적용과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냄으로 플랫폼을 통한 우리의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스토리텔링이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야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그 식탁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치유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한 나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한 여러가지 경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식탁 공동체를 확대 해 나가며,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삶의 치유와 성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르침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을 미디어 플랫폼과 접목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식탁 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이론을 확립시키고자 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식탁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논문에서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용어를 고찰하며 스토리텔링에 대해 정의 내려보도록 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이 일반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다각도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한다.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의 방식 성경의 전달

방식을 염두하여 개념을 확장시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통하여 기독교와 성경에서 발현할 수 있는 점도 파악해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성경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시작되어진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의 스토리와 신약에서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리스너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지 다루고자 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인 스토리텔링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모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방법을 구현해 나갈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의 이루어지는 장소인 식탁 공동체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하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사역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식탁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앞의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 식탁 공동체 위에서 펼쳐지는 성경의 스토리텔링의 전달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디지털스토리텔링으로 구체적인 실현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담은 콘텐츠로 어떤 것이 좋을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영상상을 제작하고 그 안에서 먹방과 쿡방이라는 이름의 유행하는 콘텐츠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장에서는 서론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방법으로 한 식탁 공동체의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목적과 의의를 찾고 이를 위한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용어에 대한 고찰을 한 뒤 교육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 여러 각도의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경 속의 스토리텔링을 찾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러로서의 이야기들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물리적인 한계없이 구현할 방법으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선택하여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디지털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3 장에서는 식탁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정의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식탁 공동체를 살펴보기 위해 구약과 신약에서의 식탁 공동체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의미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신학을 연구함으로써 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성경 속 식탁 공동체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식탁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4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실제로 해보았던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의 시도의 예를 살펴 볼 것이다. 우선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플랫폼과 콘텐츠를 선정했는지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토대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의 콘텐츠의 실례를 함께 보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본다.

5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를 통한 치유가 앞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독교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것으로 논문을 맺도록 한다.

제 II 장

스토리텔링

A. 용어에 대한 고찰

1.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를 표현, 전달하는 것은 구전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건과 사물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물이나 인물이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다.¹

스토리텔링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양식으로 사건 진술의 내용을 이야기라고 하고 사건 진술의 형식으로 담화라고 할 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²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하기로만 의미가 국한 되었던 스토리텔링은

¹ 박자현, 스토리텔링과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3.

²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서울: 2014), 15.

그 의미가 이야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스토리를 담아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사건의 순수한 지식이 아닌 화자와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겪은 사건의 경험을 시간적 연쇄로 기술하는 것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시간적인 경험의 나열과 같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치 어릴 적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스토리 전개와 형식에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또 다른 말로는 내러티브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서사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내러티브나 서사라는 말은 인과 관계와 관련이 있는 뜻이고 인과 관계를 통해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이런 자신의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이런 사건의 나열들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을 본질적으로 행위와 실천 속에서 '이야기 하는 동물 storytelling animal'⁴이라고 한다.

이렇듯 사람의 삶에서 이야기의 당위성을 놓고 보았을 때 단순히 스토리의 전달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하기도 하며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로 다양한 자신을 마주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고, 인간의 오랜 삶 가운데 이야기가

³ Ibid., 15-16.

⁴ 최해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아카데미(서울: 2011), 165.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도 전해내려오는 것이다.

이야기 안에는 인간과 함께하는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그 희노애락 안에서 과거의 삶을 답습하며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그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전래동화나 구연동화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하고 경험으로 터득해나갔던 지혜를 전해주기도 하며 한 공동체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는 인간의 삶에 깊게 자리하고 작용한다.

이런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스토리텔링만의 특성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성경이 표현되었을 때의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될 것이다.

우선 스토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청자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밖에 없다. 리스너가 스토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르침에 대한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궁금해 하고 과거의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게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좋은 스토리에는 청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낯설고 멀고 이상한 요소가 있다. 스토리의 이러한 낯선 요소들은 원시종교의 제의적 스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계 곳곳에 분포하는 기원전 3만 년전부터 제작된 동굴벽화 등에 위험한 원시적 생업인 사냥 앞에 인간이

맞닥들여야 했던 죽음의 공포 등이 그것이다.⁵ 제의적인 요소들을 가진 스토리들은 초자연적이거나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사냥 등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에서 영웅적으로 극복하는 스토리를 보여주어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주기도 하며 재앙을 물리치는 성격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협력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다양한 스토리들은 현재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스토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 보지 못했던 과거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깨닫거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의 몰입도와 그 가르침에 대한 효과는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스토리 또한 이런 원리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딱딱하거나 지루할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의 이런 특징을 통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통한 이미지들이 상쇄되고 흥미롭게 접근하여 그 가르침이 훨씬 쉽게 다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것을 좋아하며 더 나아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에 끌릴 수 밖에 없기에 성경의 스토리들을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청자가 더욱 끌리고 흥미를 가지게 된다.

스토리는 듣는 이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기억하는 행위인 회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스토리를 통하여 경험하고 세상을 탐구하며

⁵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서울: 2014), 17.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⁶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이런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들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다.

경험한 사건은 유한하지만 기억하는 사건은 무한하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의 기억이 필요하며 이는 기억을 할 때 경험의 전후에 모든 일들이 빚어내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기억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혜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을 통해 기억하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스토리를 갖게 된다.⁷ 이것은 화자가 자신이 경험을 기억하여 이야기 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들은 청자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억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억은 다른 지식적인 기억과는 다른 것이며 이 기억은 감정을 경험하게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기도 하며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더욱 기억하게 만든다. 감정이 들어간 스토리텔링을 듣는 청자는 자신의 감정을 또 집어넣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좀 더 깊은 가치를 가진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더욱 오래 기억하기에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자손과 그의 자손에게 이야기로

⁶ Ibid., 18.

⁷ Ibid., 19.

이어져 그 경험이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억은 감정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과 그 은혜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여 그 스토리가 오랫동안 남게 해준다. 이런 기억과 경험, 감정을 통하여 한 민족의 가치관과 이념, 신앙이 형성되어 그 민족의 하나님의 관한 스토리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는 오랜 시간 전달 내용의 생명력과 유용성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짧고 사소한 사건에 인생의 수십만 시간을 포괄하고 응축함으로 나타나는 의미심장함을 가지는 진실함이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기 때문이다.

스토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시간 사이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과 보편적인 고민, 보편적인 감정을 응축⁹시켰기 때문에 그 응축된 감정을 지닌 스토리는 시간과 시간을 지나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 청자의 마음과 기억 가운데 살아있는 진실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이런 화자의 감정들을 응축시켜 전달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오랜 시간 전달되어도 생생한 것들을 전달한다. 생생한 것들을 전달한다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들을 진실되게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 진실되게 나타냄은 듣는 청자에게 진실하게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로 전달된다. 스토리가 진실되게 다가온다는 것은 진실됨을 느끼는 것이고 청자가 진실됨을 느낄 때 그 이야기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⁸ Ibid , 21

⁹ Ibid , 21

된다. 성경은 참되고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의 진실됨은 배가될 것이다.

2. 스토리텔링의 효과

1) 얹에 대한 고찰

얹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얹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탐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통한 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위

“스토리텔링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이야기는 사실과 정보 뿐만 아니라 사상과 신념을 전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이야기의 종교였으며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얹”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Terrence Tilley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이고 뚜렷한 구조와 내용을 제공한다...이야기는 단지 장식이나 예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제공한다. 기독교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¹⁰

교육심리학자인 Jerome Bruner는 이야기를 얹의 방법의 하나로 주목했는데 그가 말하는 얹의 유형 중 하나인 “서사적”(narrative) 유형의 얹을 우리는 지식경험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다. 그는 서사적 유형이란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드라마, 신뢰할만한 역사적 이야기거리”를 통해 “인간 또는 인간과 같은 의도,

¹⁰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신앙교육을 위한 얹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81), 2014, 297-324.

그리고 행동,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결과를 다룬다.” 고 이야기 한다.

또한 서사적 삶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Sigrun Gudmundsdottir는 “서사적 구조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쉽게 얻어지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미를 만드는 활동에서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끌어낸다.” 고 말한 것처럼 학습활동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야기인 것이다.¹¹

따라서 이런 서사적 삶을 통해 과학적 증명이나 논리적 사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가 어떤 삶의 방법으로 작용하며 신앙적 지식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까?

Susan M. Shaws는 Storytelling in Religious Education에서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며 행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통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Shaw는 “스토리텔링은 삶의 유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유기적으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을 통합시키고 종교교육의 장에서 학습의 통전적 방법을 가져온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전존재를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경험적, 직관적, 상상적 삶과 합리적, 분석적 삶을 함께 가져온다.”¹²라며 이야기는 전인적 삶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¹¹ Ibid., 302-303.

¹² Ibid., 306.

2) 다양한 교육적 과제 수행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정보와 가치, 그리고 평가가 담겨져 있어서 화자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한 가지라 하더라도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사실과 정보들이 청자들의 지식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여 이야기를 다면적으로 이해하여 배경지식을 형성해 주도록 도와준다.¹³

Shaw는 “이야기는 실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신화와 민화는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준다.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력을 격려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야기는 언어습득에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삶의 유형 선택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적 과제 안에서 역할을 담당한다.”¹⁴고 했다.

3) 자기주도학습 촉진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타인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이 계획한대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전 과정을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촉진된다.

Shaw는 “상상적이고 모호한 본성을 통해 이야기는 학습자들에게 성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면서 실재를 창조하고, 확증하며, 도전한다. 학습자들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가치 결정과정, 태도, 삶의 유형, 의사 소통기술, 상상력, 비판적 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통합을 발달시키는데 참여한다.” 고 했다. 즉,

¹³ Ibid., 307.

¹⁴ Ibid., 307.

이야기가 자기주도학습의 전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반성과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교육에서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¹⁵

4) 감성적 반응과 태도의 변화

이야기는 그 내용과 표현을 통해 감성적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Shaw는 “이야기들은 종교교육자들에게 감성적 발달과 표현을 촉진시키는 매체를 제공한다.” 고 했다.¹⁶

즉, 이야기는 학습자의 감성을 발달시키고 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감성을 작용시키는 성경¹⁷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이들로 하여금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는데, 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상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지역이나 나라의 신화나 민담 혹은 전설 등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그 공동체에 속하는 자손들이 자신들의 태도에 대한 지침을 삼고 수정해나가며 삶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Shaw는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종교적 태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¹⁵ Ibid., 307.

¹⁶ Ibid., 308.

¹⁷ Ibid., 308.

확립하고 삶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왔던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¹⁸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만이 갖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의 결집력을 높여주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태도에도 나온다는 것이다.

B. 성경의 가르침과 스토리텔링

1. 성경 속 스토리텔링

1)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성경에서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Elie Wiesel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야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Yitzhak Buxbaum은 스토리텔링이 토라의 연구나 기도처럼 성스러운 활동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⁹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이 “옛날에” (Once upon a time)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²⁰의 서두를 나타낸다.

¹⁸ Ibid., 309.

¹⁹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161.

²⁰ Ibid., 162.

그 웅장한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곧 우리를 위한 이 세상을 지은 창조의 이야기이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며 그 이야기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시작하신다. 곧 이야기의 소유자인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핵심이며 근본이고 전부라는 것을 천명하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의 근원이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진리의 스토리인 것이다.²¹

a)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²²

이 웅장한 나레이션의 시작으로 창세기는 시작된다. 어릴 적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옛날 옛적의 이 이야기는 무에서 유로 바뀌는 이야기이다.

즉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기원 스토리이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시작된 이 출발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답게 강하고 전능한 힘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가 밟고 있는 바로 이 땅, 그 땅이 처음에는 아주 황폐했고 공허했으며 정돈이 되지 앵무질서해 보이는 상태였다. 마치 이것을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황량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상태. 그것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말조차 있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무의 상태를 말한다. 그 흑암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다.

²¹ Ibid., 162.

²² 창세기 1:1

흑암이 깊은 것은 마치 지구의 표면에 있는 거대한 심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흑암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람과 입김이라는 말이다. 단순히 물 위에 불어서 물살을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입김을 말한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비롯됨을 암시한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알을 품고 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황량하고 공허한 상태에서부터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세상을 품고 생명의 탄생을 시작한다. 그것은 성령의 사랑과 보호이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²³는 스토리텔러가 되시는 하나님 사역의 시작을 말한다. 또한 이 말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는 절대자이시며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에게 나타내는 말이다.

모든 것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빛과 어둠, 궁창과 물, 땅과 바다 그리고 그곳의 식물, 천체, 물고기와 새, 모든 동물을 말이다. 인류 최초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²⁴ 그것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또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²⁵하니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²³ 창세기 1:3

²⁴ 창세기 1:5

²⁵ 창세기 1:6

불렀더니 그것은 하늘이 되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이야기 장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무려 10번이나 나온다.

“God said” 스토리텔러가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또 “he called” 스토리텔러 답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며 각각의 이름을 지으신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물이 드러나라 하면 그대로 되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면 그것이 땅이 되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면 또한 그대로 된다. 또한 지혜로운 스토리텔러는 창조물들을 필요에 따라 각기 종류대로 나누는 스토리 안에 그들을 두신다.

그리고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스토리 안의 땅과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계속 된다. 낮과 밤을 나뉘게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며 땅을 비추는 광명체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며 모든 것을 자신의 특별한 스토리에 초대하신다.

진정한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생물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더욱 드러난다. 물에게 이야기하여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시고 새들은 하늘에서 날게 하며 바다에서 생물이 움직이게 하고 각기 종류대로 나누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스토리의 더욱 특별함을 더하시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²⁶고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하신다.

²⁶ 창세기 1:22

드디어 이 스토리의 정점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한다. 이 모든 스토리에 포함된 것들이 마치 자신의 형상의 특별한 사람의 스토리를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²⁷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 대신에 다스리게 하는 다스림의 권한을 이야기하며 외롭지 않게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 정복과 준비하심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스토리의 시작의 끝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로 일단락이 되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애정어린 표현과 찬사로 마무리 된다.

b) 출애굽(유월절)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한 축이 되고 그 스토리는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이어져 종국에는 애굽을 떠나기 전 유월절의 원형이 되는 식탁 이야기를 경험시킨다. ²⁸

이 스토리의 시작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며 시작된다.

애굽을 배경으로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으로

²⁷ 창세기 1:26

²⁸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163.

그들의 상황이 묘사된다.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들에 소리를 듣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다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심으로 본격적인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이어나가신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다. 그의 스토리는 거룩한 땅에 대한 설명과 신을 벗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들었다는 표현으로만 나타내어졌던 일들이 자신이 스토리를 말하므로 자신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천명하시며 본격적인 하나님의 스토리는 시작된다.

이 특별한 출애굽의 스토리에서 특이한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도 애굽으로 가서 그 스토리를 전하는 스토리텔러가 된다는 점이다. 철저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훌륭한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감당하며 스토리는 전해짐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열 가지 재앙의 스토리,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인 모세의 텔링으로 스토리를 구성해 나간다.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식탁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는 유월절 식탁의 시작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광야에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나누는 식탁의 자리를 볼 수 있다.

이 스토리의 끝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²⁹라는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성막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충분히 묘사되며 끝난다.

c) 웨마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³⁰

웨마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의 핵심³¹이 되고 자신이 스토리텔러가 되신다는 선포적인 말이다. 스토리텔러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토리리스너³²로 지명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스토리텔러는 바로 자신임을 명명하며 그것에 대해 받드시

²⁹ 출애굽기 40:32

³⁰ 신명기 6:4-9

³¹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163.

³² Ibid., 163.

순종하고 따를 것을 명령하는 스토리이다.

모든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유일신 스토리의 강조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유일신 스토리는 이 중심 주제의 기원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인한 어조의 스토리텔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외치시며 말씀 하신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토리리스너인 그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함에 대한 확고한 것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강령에 대한 스토리를 덧붙이신다.

그것은 스토리텔러의 단호한 친절함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너희는 유일하게 나의 이야기만 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리스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행동을 지침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토리의 중심 이야기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스토리텔러가 유일무이한 스토리리스너에게 다른 곳에 한눈팔지 말고 나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앞으로 들어가야 할 곳의 위험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나만의 이야기를 듣기를 명령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쉼마이다.

이 스토리를 통해 한 분의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듣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끈끈한 리스너의 공동체로 묶이게 된다.

이 공동체가 듣는 이 스토리는 사랑의 스토리이기도 하다. 명령이 공존하는 사랑의 스토리는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이 리스너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절대적 사랑의 스토리인 것이다.

2)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이었던 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였다.³³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시각적 소통 문화가 의사전달 수단이었고 문자와 글은 스토리텔링의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Burge는 “예수님의 세계는 또한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극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 자신도 극적이었고 이것은 그의 교수전략의 특징이었다. 부패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했다. 즉, 글보다는 말과 행위가 사상과 교훈을 전달하는 주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³⁴

예수님의 가르침과 스토리텔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실 때 소통의 기술적 형식으로 채택하신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³⁵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주변의 이미지들을 통해 그것을 수단화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보존하고 공유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a) 비유적인 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를 비유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은 청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에

³³ Ibid., 454.

³⁴ Ibid., 455.

³⁵ Ibid., 455.

참여하도록 하며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도록 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참여시켜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고 생각하게 하며 새로운 의미를 낳게 하기도 하고 고갈되지 않는 해석을 유도하고 삶의 복잡성과 미묘성을 재기술³⁶하여 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열게끔 도와준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일상성 속의 결단을 유도하는 궁극성이 공존하고, 평범성과 비범성, 친숙한 것과 낯설게 하는 것이 공존하여 새로운 의미를 낳게 한다.³⁷

예를 들면 ‘큰 잔치의 비유’에서 주인이 일상적인 삶에서의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초대받는 자들이 모두 거절하고 자신이 다시 결정을 해야하는 삶의 문제에 이르는 것을 통해 평범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는 비범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시적 은유를 통해 독특한 체험이 시적인 은유를 거치면서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져서 일상적인 것과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것이 동시에 나타내게 만들어 청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즉 청자가 이 비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얻고 ‘큰 잔치의 비유’ 처럼 초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뒤바뀌게 되면서 일상이 낯선 것으로 변하는 일들을 드러낸다.

³⁶ 김덕기, 예수 비유의 서사성, 은유성, 상징성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모델 형성 :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막 12:1-8)를 중심으로,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 문화* Vol.8, 1999, 78.

³⁷ Ibid., 79.

또 예수님의 비유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의 긴장을 드러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두를 나타낸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비유가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겨자씨와 누룩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에 관한 뚜렷하지 않은 본성과 그것이 도래할 때 종말을 비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도래했으며 미래까지 이어져 존재함을 의미한다.³⁸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하게 하는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청자들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게 도와주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려는 배려깊은 스토리텔러의 지혜가 녹아져있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청자들에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였으나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소재들로 비유함으로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구체화하여 청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체험되도록 하였다.

b) 과장하는 말 : 마태복음 5장 27절~32절

³⁸ Gowler, David B.,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김세현 역, (서울: CLC, 2015), 158.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볼 때 그들은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할 때에도
 비율적으로 오른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9장 ”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³⁹과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⁴⁰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오른쪽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그들에게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다.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³⁹ 출애굽기 29:20

⁴⁰ 사무엘상 11:12

이 무서운 명령의 목적은 27절에 알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형벌은 돌로 치는 것이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제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최고 형벌은 어떨 때 선고가 내려지는 것일까.

바로 간음이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⁴¹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도 간음한 사람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만큼 간음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가장 큰 죄로 여겨졌고, 그런 큰 죄였기에 그것에 대한 경고는 더욱 무서웠을 것이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간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범죄 뿐 아니라 정신적이며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망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을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경고를 하며, 유대인들이 당시 더욱 가치있게 여기는 오른쪽이라는 단어에 구체적으로 범죄의 도구적인 의미를 담아 아무리 중요하고 너의 몸에 가치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없애버려야 맞다라는 교훈을 넘어서 무서운

⁴¹ 에스겔 16:8-40

죄에 대한 형벌로 경고한다.

여기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현의 유형에 대한 독특함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쓴 표현은 과장하는 말⁴²이다. 과장하는 말은 Stein이 말한 것처럼 셈족의 언어 특성 중 하나였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야기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남김으로서⁴³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c) 말장난 : 마태복음 23장 24절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한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는 말로 이는 작은 일에는 집착하고 큰 일은 소홀히 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던 속담을 예수님의 언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이 쓰였던 속담을 예수님의 재치로 변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하루살이처럼 작은 벌레들이 포도주와 함께 섞여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포도주에 벌레들이 섞여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을 망으로 걸러내어 포도주를 마셨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살이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에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망에 걸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정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이 당시에는 많았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⁴²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462.

⁴³ Ibid., 462,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⁴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으나 그 중에서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졌지만 부종하게 여겨졌던 짐승 중에 낙타가 포함되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루살이나 낙타는 전부 부정한 것에 포함되었다.

이를 비교하며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똑같이 부정하면서 더 큰 짐승인 낙타는 삼킨다는 말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사소한 정결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막상 더 중요한 계명들은 어겨버린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사소한 식물들의 십일조는 드렸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은은 행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당시에 낙타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작은 벌레인 하루살이와 같은 사소한 것을 제거하기 힘쓰면서 낙타는 분별하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행위는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며 그것을 비틀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⁴⁴ 레위기 11:3-4

또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재밌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란 Stein이 말한 것처럼 두 개의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혹은 한 단어가 다른 두 의미를 가질 때 이를 가지고 말로 장난을 치는 것을 말한다.⁴⁵

이것은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에서 가져온 말이었다. 아람어에서 낙타는 감라(gamla)이고 하루살이는 갈마(galma)의 근소한 발음의 차이를 이용하여 의미를 바꿔 해학을 이끌어내는 방법⁴⁶을 사용하신 것이다.

2.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효과

1) 성경으로의 참여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라는 말이 있다.

나래라는 말은 날개라는 순우리말로 이 말의 뜻은 상상이라는 것은 날개를 단 것처럼 우리에게 장소나 상황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경험을 준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서도 이러한 상상력은 크게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필요한 것은 이야기의 내면과 외면을 살피는 탐구인데 특별히 성경은 실제적 상황과 배경, 인물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더욱 이런 탐구가 요구된다.⁴⁷ 이런 탐구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서 배경과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⁴⁵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463.

⁴⁶ Ibid., 463.

⁴⁷ Ibid., 170.

상상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하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할 수 없고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엉뚱한 허구나 거짓을 말한다고 치부하기 십상이다. 이런 취급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리스너들이 마음으로 성경 이야기에 접근하여 Michael Card가 말하는 “정보가 제공된 상상력”으로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⁴⁸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는 역사적 상황과 그 배경 속으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장점은 스토리리스너들을 이야기 속으로 참여 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텔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리스너들도 중요하다. 그들은 스토리로 들어가 이야기 속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단순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에는 리스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공동체의 이야기 안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참여자가 된다.

성경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상대방으로서의 청자가 되지만 이런 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을 초래하는 이야기를 제공하게 된다.⁴⁹

그들의 이야기는 스토리텔러인 하나님과 함께 하던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의

⁴⁸ Ibid., 171.

⁴⁹ Ibid., 166.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며 시작한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나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죄를 반복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서 이어져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거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의 시대가 찾아오고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며 인간의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은 죄에 죄를 반복하며 결국 포로생활에 이르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많은 스토리텔러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구속사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다. 그 배신과 용서, 반복되는 죄의 상황과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리스너가 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게 리스너이자 참여자가 된다.

Leland Ryken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삶을 관찰하는 창문⁵⁰이 되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 거울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우리는

⁵⁰ Ibid., 167.

리스너가 되는 순간 그 곳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이점일 것이다. 리스너가 되어 그 곳에 빠지는 것, 이야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을 구현의 과정⁵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구현의 순간은 결국 스토리텔러인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안에 곧 자신이 주제가 되고 자신의 이야기 안에 백성이 된 한 공동체의 삶과 그들만의 역사, 문화,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현해 내어 참여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2) 공동체 형성

이야기는 공동체의 상황과 자신들만의 역사를 담아 그들의 조상과 그 조상의 조상, 훨씬 이전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로 거슬로 올라가 오래전 그들의 스토리를 담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그들만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게 된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하고 그 스토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만의 역사를 기록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한다.⁵²

이렇듯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통계획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Frank Smith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어떤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을 수 없거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다는

⁵¹ Ibid., 167.

⁵² Ibid., 164.

것은 사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스토리리스너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간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출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곳에서도 반복된 죄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왕을 세우면서 결국 포로 생활로 이어져 멸망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스토리를 들은 우리들은 그곳에서 반복되는 죄의 이야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스토리텔러인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귀결되면서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된 스토리 리스너인 우리가 그 분의 제자가 되고 그 분이 모으신 공동체를 경험하게 한다.

이 스토리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모으고 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스토리에서 그 한정된 공간을 뛰어 넘어 결국 이방인들과 전 세계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확장된 스토리로 그 스토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며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귀결된다.

⁵³ Ibid., 16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⁵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의 성취

스토리텔러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복음서에서만 하나님나라라는 말은 100번 이상 나오며 이 말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스토리 안에 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첫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⁵⁵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 하였다.

마가복음 4장의 자라나는 씨 비유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⁵⁶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는....같으니’ 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 겨자씨 비유에서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⁵⁴ 사도행전 1:8

⁵⁵ 마가복음 1:15

⁵⁶ 마가복음 4:26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⁵⁷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리스너들이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를 잘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될지에 대해서 늘 염두하여 이야기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과 더불어 그 스토리텔러는 자신의 승천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⁵⁸

결국 스토리텔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리스너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말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⁵⁹

⁵⁷ 마가복음 4:30

⁵⁸ 사도행전 1:3

⁵⁹ 시편 103:19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⁶⁰

최초의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이름을 불러 자신의 다스리는 곳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그 곳에 두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펼쳐지는 다스림의 영역이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곳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현재의 시간에만 머무는 곳도 아니며 공간과 시간으로 묶어 둘 수 없는 우주적, 보편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백성된 우리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또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⁶¹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우주적인 것을 넘어서서 더욱 초월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중에 나온다.

⁶⁰ 시편 103:22

⁶¹ 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⁶²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학적 관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곳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뒤집어엮는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지 못한채 그의 이야기들을 비아냥 거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을 속의 진정한 뜻을 조롱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의미를 가진 영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보지 못함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곳임을 스토리텔링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움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도래했으며 또한 가까웠다고 하는 미래까지 이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말한다.

⁶² 누가복음 11:20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왔음을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답게 살기를 노력하고 실천한다. 로마서 14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⁶³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적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⁶⁴와 공의가 통치이념이 되고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⁶⁵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의와 사랑이 그곳에 가득하기를 위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실질적인 실천자들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할 것이다.

Craig R. Dykstra는 “기독교인의 실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임재하심이 알려진 우리의 삶 속의 문을 열어주는 공동체적 행위 양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에 참여하는 형태이다.”⁶⁶ 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참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⁶³ 로마서 14:17

⁶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14

⁶⁵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⁶⁶ Craig R. Dykstra,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Louisville, KY: Geneva Press, 1999), 66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맞게 의와 공의로 가득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동참하여 진정한 하나님 이야기의 리스너이자 참여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C. 디지털 스토리텔링

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이해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스토리 말하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디어를 접목하여 표현한다면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하고 ‘말하기’는 ‘미디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로 본다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⁶⁷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모두가 이야기 구성 과정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유저와 미디어, 유저와 유저, 유저와 또 다른 공동체가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다.⁶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디지털 미디어 작업으로 전환해서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고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므로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⁶⁹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이미지, 오디오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기존의

⁶⁷ 변민주,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

⁶⁸ Ibid., 1.

⁶⁹ Ibid., 1.

스토리텔링 방식에 멀티미디어 요소⁷⁰가 더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쉽게 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화 지식과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흥미’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⁷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성경의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상에서 식탁 공동체의 경험을 유도하여 콘텐츠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청자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의 장점을 통해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점이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 실현되었을 때 공감은 물론이고 학습적인 면이나 전달에서 훨씬 쉽게 될 수 있을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청자를 통해서 지식을 쉽게 쌓을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스토리텔링은 크게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과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은 콘텐츠를 창조하는 데 허구성을 강조하여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 배치, 편집, 디자인하는

⁷⁰ 고정민,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동영상 콘텐츠의 한국문화교육활용에 대한 일 고찰,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4집, 2017. 12.

⁷¹ Ibid., 11.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광고나 에듀테인먼트, 뮤지엄⁷²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식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먹방이나 쿡방을 소재로 하여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녹아내고 이 안에서 주제와 이야기를 만들어 각 콘텐츠 안에서 이야기가 역할을 하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반으로 하기에 적당한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튜브를 통하여 공유하는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영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공유한다는 점으로 만약 콘텐츠가 비정기적이며 여러가지 목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일정한 기간과 요일을 지켜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⁷³

둘째, 철저하게 준비된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점으로 즉흥적으로 제작되는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 보는 동영상 콘텐츠는 특정 이야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제작되기 때문에⁷⁴ 제작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디지털스토리텔링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⁷² Ibid., 18.

⁷³ Ibid., 20.

⁷⁴ Ibid., 20.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고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플랫폼들과는 달리 긴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에 맞게 다양한 음향효과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최적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⁷⁵

넷째, 기존의 흥미 위주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⁷⁶

유튜브의 이런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적인 점은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많은 장점을 가지며 특별한 스토리를 담는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통해 스토리텔러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부각시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흥미롭고 접근성이 쉬운 성격의 디지털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미디어를 통한 식탁 공동체의 형성과 참여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기 충분할 것이다.

유튜브는 댓글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상대방의 참여도를 유발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의 장점 중 상호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러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텔링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만들어 대중을 사로잡는 장치’ 이기 때문에 디지털스토리텔링으로 확대시켜 영상과 음향, 내레이션이나 자막 등으로 하나의

⁷⁵ Ibid., 21.

⁷⁶ Ibid., 21.

이야기를 구성하여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식탁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⁷⁷

⁷⁷ Ibid., 23.

제 III 장

식탁 공동체

A. 식탁 공동체란

1.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란 단어는 나누다, 공통의, 일반적인, 공공의 등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Communi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의 파생어인 Community는 ‘친교’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는 공동 사회, 혹은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하는 조직체⁷⁸이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으로 각 구성원들이 동질성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체는 성서적인 의미로 볼 때 Koinonia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쓰인다.

Koinonia는 그리스어 단어로 친교, 교제, 교통, 공동으로 참여하며 나눔을 의미하고 신약성서에서도 자주 쓰이며 초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로 쓰인다. 함께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의미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친교 이상의 돈독하고 끈끈한 관계를 일컫는다.

⁷⁸ 김대목, *예수의 밥상공동체에 나타난 공동체 형성 모색*,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 2006, 9.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서 불리모드라는 에칼레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말로서 원래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로 아테네의 민회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단어를 사도바울이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말로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사용하는 말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의 처음이 되는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서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떼며 물질과 영육간의 교제를 동시에 나누는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의 시작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2. 구약성서에서 식탁 공동체

1) 광야에서의 식탁 공동체

구약성서는 히브리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있다. 우리에게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과 상통되지만 원래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져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히브리라는 말과 문자의 일치를 보여주는 하비루라는 말은 아카드어에서 왔다. 이는 도망쳐 나와 떠돌아다니는 노예들, 부랑자들이나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이거나 거처가 없이 떠도는 가난한 자들,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등 사회에서 약자의 모습을 가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뜻을 가진다.

우리에게 히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민족으로

미화되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름에 붙은 의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사는 이들, 가진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로 쓰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하는 동의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였던 것이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는 말로 보았을 때 요셉은 하비루라고 불리는 계층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창세기 43장에서 ”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⁷⁹라는 말씀에서 보면 이 히브리로 불리는 자들은 애굽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지 못하는 따로 해야만 하는 자들로 그들은 식탁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들은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애굽에 온 외국인 노동자인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하비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탁이라는 공간이 그저 밥이나 먹는 공간인 것 같아도 그 공간에서는 많은 것을 의미하며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양반과 노비는 식사 장소 자체가 같을 수 없었고, 당연히 양반이 먹는 찬과 식사는 노비가 먹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 시대가 지났지만 남녀의 차별이 존재했던

⁷⁹ 창세기 43:32

시대에도 남녀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식탁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식탁에서 나란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며 더 나아가 같은 신분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나란한 식탁이라는 공간은 히브리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존재하지 않았다.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삶은 겸상은커녕 종족 대학살의 위기에 처해져 자기 민족의 후손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삶은 온갖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좋은 식탁을 차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길거리 식탁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배고픔을 걱정해야 했고 안정된 식탁은 갖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노예생활을 그리워할 정도로 굶주린 세월의 연속이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굶주리고 불안정한 식탁을 전전하던 때에 그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기적의 식탁을 허락하신다.

출애굽기 16장에서 ”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⁸⁰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쌓이둘 수 없는 식탁을

⁸⁰ 출애굽기 16:13-14, 31

차려주시며, 그 식탁을 차려주시는 이도 거뒀가시는 이도 여호와임을 분명히 가르치신다.

”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⁸¹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하는 첫 식탁 공동체였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해 가나안 땅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며 폰 라트는 그 ” 이스라엘 “이란 말이 ” 하느님이며, 통치하소서 “를 뜻하는 말로 자신들이 노예로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하며 열망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억압과 수탈이 없는 나라⁸² 평등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였다.

그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식탁은 어떤 발 빠르고 힘이 센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가질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식탁 공동체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파의 가족에 따라 평등하게 나누면서 ⁸³평등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누리게 된 식탁 공동체는 하나님이 차리신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으로 이루어진 식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식탁 공동체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⁸¹ 출애굽기 16:12

⁸² 김대목, 예수의 밥상공동체에 나타난 공동체 형성 모색,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 2006, 9.

⁸³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23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으며 궁핍한 히브리 사람에서 누구나 공평한 식탁을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였다.

”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⁸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식탁 공동체를 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첫 식탁 공동체였다.

2) 제바흐 식탁 공동체

A.J. Chupungco에 따르면 유월절의 외형적 관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농경사회가 형성되기 이전 근동에 살았던 유목민들의 식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유목민들이 봄이 되면 풍성한 목초지를 향해 떠나기 직전에 축제를 열었다.⁸⁵

이 축제는 공동식사를 동반한 잔치로 정해진 기간동안 키운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린 다음 몸은 통째로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곁들여 긴장된 상태에서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은 아침 전에 모두 불태웠다.⁸⁶

이 유목민들의 식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어 의미가 있으나

⁸⁴ 여호수아 5:12

⁸⁵ 김대륙, *예수의 밥상공동체에 나타난 공동체 형성 모색*,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 2006, 20.

⁸⁶ Ibid., 20

더 나아가 유월절 식사가 이 식사보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관계를 통해 신학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⁸⁷

또한 유월절이 제바흐의 형식에 따라 지켜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 제바흐는 쉘라밈 혹은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며 제바흐(제사 혹은 화목제로 번역)는 번제와는 달리 희생재물의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방부분만 불에 태우고 후에 남은 부분을 공동의 제사로 가족과 가족이 확대된 대가족이 공동 식사를 한다.⁸⁸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를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며 제바흐의 어원적 의미는 죽이다 혹은 도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쉘라밈의 어원은 조화, 평화,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원이 파생된 샬렘은 조화롭다, 행복하다. 회복시키다. 완전하다. 화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바흐 쉘라밈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과 함께 화목제에 함께 참여해 그 식탁에서 나누는 것을 큰 의미로 두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제바흐 쉘라밈이란 “성소(sanctuary)로 가는 축제와 가족 여행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⁸⁹이기도 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와 친교를

⁸⁷ Ibid., 20

⁸⁸ Ibid., 20.

⁸⁹ 권도훈, *레위기 4-5장을 중심으로 한 속죄제와 화목제 연구 동향 분석의 의의*, *계명대학교*, 2023, 46.

하며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식탁 공동체였던 것이다.

H. Ringgren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화로운 친교에 대한 표현이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함께 희생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는 공동식사가 화목제의 절정이라고 하였다.⁹⁰ 화목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연회 분위기에서 조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제바흐 쉐라밈은 마치 마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열리는 마을 잔치를 연상케 하기도 하며 공식적으로 크게 열리는 연회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마시는 행위가 식탁 위에서 행해지는 감정적인 교류에 장이기도 하며 그 자리는 곧 평화의 식탁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광야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며 늘 음식으로 인해 전전긍긍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화의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제바흐 쉐라밈의 목적은 평화라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식탁의 자리가 그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제바흐 쉐라밈은 잔치이자 평화의 식탁이다.

더욱 우리가 의미있게 볼 것은 유월절이 제바흐의 형식에 따라 지켜졌다는 점이며 여기서 성스러운 식사가 중심 주제로 등장해,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출12:1-36)에서는 유월절을 제바흐라고 묘사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있어 야훼께 바쳐진 제바흐(zebhaḥ leyahweh, 출 12:27)로 기억되는 것이다.

⁹⁰ Ibid., 41.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공동 식사하는 장면은 유월절의 제바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시내산에서 하는 공동 식사를 일컫는 제바흐와 유월절 식사를 일컫는 제바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사가족관계(quasi-familial relation)”⁹¹로 만들어주는 식탁 공동체이며 그들에게 이런 식탁 공동체의 행위 자체는 자신들에게 해방과 평화와 정착감, 안정을 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애굽에서 궁핍하고 종살이 하던 시절과 광야에서 떠돌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그들에게 제바흐의 식탁 공동체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정착하는 삶을 산다는 마음과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큰 축제이며 유월절 식탁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나누는 자리,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굳건히 만드는 자리였고 자신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상기하고 나누며 교제하는 평화의 식탁의 자리였던 것이다.

유목민들의 제바흐, 시내산에서의 제바흐, 유월절의 제바흐 이 모든 식탁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계약과 그 계약을 상기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석하는 자리, 자신들의 궁핍하고 가난한 시절로부터의 풍요로움의 자리, 장자의 죽음과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의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자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함만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봐주심을 경험하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자리, 또한 민족의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는 평화의 식탁

⁹¹ 김대륙, *예수의 밥상공동체에 나타난 공동체 형성 모색*,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 2006, 21.

공동체인 것이다.

3. 신약에서의 식탁 공동체

1) 복음서에서의 식탁 공동체

복음서에서는 많은 식탁 공동체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으며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식탁 공동체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과 동일시 되는 수단으로 언급했고, 또한 그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며 그 떡은 생명을 준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식탁 공동체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후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기에 식탁 공동체가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⁹²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기쁨에 자리에 동참하신 것을 보게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쁨의 자리는 잔치 자리로 표현이 되고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마시고 나눔으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같이 모여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함께 함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의미있는 식탁 공동체였던 것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⁹³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사랑의 실천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의미있는 행위들도 식탁 공동체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복음서는 이처럼 식탁 공동체에 많은 의미를 두어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먹고 마심, 굶주림과 목마름 등의 음식과 관련된 비유가 많이 기록된 것으로 식사 공동체가 매우 의미있는 행위였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전할 때 먹는 행위로 비유를 하신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사역에서 식탁 공동체가

⁹² 요한복음 12:1-2

⁹³ 요한복음 13:4-5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이 되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며 그 때 식탁 공동체에 앉는 자들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야기 하셨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서 기록된 ‘큰 잔치의 비유’ 인데 이를 통해 식탁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에 대해 식탁 공동체와 관련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신학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가르치시기 위해 식탁 공동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신도 식탁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다.

이를 통해 식탁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 다시 오실 미래와 구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탁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초대 교회의 식탁 공동체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떡을 떼며” 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식탁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서 기인했을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⁹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처음 만나시고 떡을 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서의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주는 생선을
 함께 나눠먹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직접 생선을 구워 떡과 함께 먹이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초대 교회의 식탁 공동체의 형성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일들과 관련이 있으며 부활 후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사람들은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를
 특별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들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심으로 실재적으로 살아계신

⁹⁴ 누가복음 24:30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눴던 자들의 자리가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친교를 나눴던 것이 식탁 공동체의 중요한 점이었던 것이다. 슬픔의 상황이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그곳이 바로 식탁이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 식탁에서 나누고 먹고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식탁의 자리를 재구성하였고 다시 예수님과 그 자리를 회상하며 만든 자리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자리의 식사의 자리를 미리 맛보고 앞당겨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⁹⁵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부활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부활후에 가졌던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그의 부활 신앙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보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렸던 제자들과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식탁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식탁 교제에 그 시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대 교회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매일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썼으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⁹⁵ 사도행전 10:40-41

공동체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떡을 떤다는 표현이 여러번 나온 것으로 보아 식탁 공동체가 예배와 더불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떡을 떤다’ 라는 말은 공동체가 결속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먹는다는 일상적인 말이 아닌 떤다라는 표현으로 이 식탁 공동체를 가진 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예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리츠만(Lietzmann)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식사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다고 하며, 하나는 초기 유대-기독교 공동체의 “즐거운 교제로서의 식사”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식사” 인데, 전자는 역사적 예수가 공생애 기간 가운데 행했을 식사의 형태이고, 후자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신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전11:25)” 는 명령을 따른 형태이다.⁹⁶

초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절 16절-20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사명이 공동체를 확장, 확대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들에게 현실은 로마제국의 압제와 차별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를 공유하는 이 모임에서는 서로 소유를 팔아서 돕고 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던 공동체의 모습으로 되어갔다.

⁹⁶ 최진환, “식탁교제를 통해 살펴본 누가의 삶의 자리”, *감리교신학대학교*, 2013, 21.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식사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식탁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평등을 꿈꾸는 삶이었다.

가장 기본적인지만 자신들이 상황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이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를 초대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초대 교회의 식탁 공동체는 그 식탁 위에서 사랑과 평안, 평화를 누리고 차별받거나 자신들만 낙인찍혀 핍박받는 것이 아닌 평등을 누리는 식탁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하늘나라를 맛보는 하늘나라의 잔치였다.

당시 초대 교회는 로마제국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의 삶은 늘 가난할 수 밖에 없었고 배고플 수 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그들이 맞이하는 식탁 공동체는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자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희망의 자리를 갖게 하고, 또한 그 식탁의 자리는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된 평등의 자리였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격받지 않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 공동체는 배고픔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삶의 의미를 집약⁹⁷된 자리로 예수님의 온 생애의 집약,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집약, 예수님의 사랑의 집약, 예수님을 통해 하나로 묶인 공동체의 집약, 또한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의 집약이었다.

4.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신학

“주리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느끼셨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고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인간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 속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예수님이 주리신 상황이었고 배고픔의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이었으나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은 넘겼지만 그것이 나약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몸소 경험하시고 식탁 공동체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의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식탁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시현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⁹⁷ Ibid., 32.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함께 하는 식탁의 교제는 잔치로 표현되었는데, 그 잔치는 자신이 훗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묵시론적 기대와 먹고 베푸는 자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⁹⁸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곧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 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말하며, 그 잔치는 곧 올 것이며 또 이미 도래하여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해 식탁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들이며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 곳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것임을 알려주는 구체적 교제의 행위였다.

또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⁹⁸ 누가복음 13:29-30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⁹⁹

이 이야기는 주인이 잔치자리를 위해 종을 모두 밖으로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하는 이야기이다. 초대된 사람은 이러한 이유가 있어 전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초대를 거절한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시켜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 하니 그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눈이 안 보이는 자들, 저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¹⁰⁰라고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참여받은 이들은 유대인을 일컫는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로 초대를 거절하고 그 거절을 들은 주인은 화를 내며 길에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고 한다.

초대된 자들은 전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이처럼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초대하는 자리이며 특히 누구도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는 식탁이었다. 어찌보면 이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셨을지 모른다. 이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지금의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무료 급식과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엄연히 단순한 동정으로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과 다른 것은, 그들은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귀한 잔치 자리에서 무료 급식을 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다. 잔치라는 것은 축하받거나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⁹⁹ 누가복음 14:21

¹⁰⁰ 누가복음 14:15

때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 식탁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며 오롯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아무 조건없이 초대되는 잔치이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초대받기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셔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길 원하셨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창녀, 세리 등 그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과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였고 기꺼이 그들과 기뻐하고 나누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그런 자리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같은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식탁이었다.

B. 성경 속 식탁 공동체를 통한 가르침

1. 돌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¹⁰¹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탁 공동체에서는 늘 먹는 음식이 존재하고 그 음식을 보면 그 식탁의 의미가 떠오를 것이며 그 공동체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존재한다.

¹⁰¹ 출애굽기 24:11

모든 식탁에는 작게든 크게든 목적이 있고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이들에게는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민족의 특별한 식탁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존재한다. 그 특별한 식탁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유월절 기간 동안의 식탁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아이들이 묻고 어른들이 답하는 특별한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오늘 밤은 왜 다른 밤과 다른가요? 이날 식사는 다른 날 하는 식사와 달리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¹⁰²라는 질문을 하며 어른들이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그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특별한 스토리를 꺼내놓는다.

먼 옛날 우리는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단다. 하지만 우리의 창 조주께서 전능한 팔을 뻗어 선조들을 건져 주셨지. 거룩하신 분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까지도 파라오의 노예로 있었을 거야. ...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이야기를 하면 할 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미하게 되지. 그분은 찬 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란다.¹⁰³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음식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

¹⁰² Willimon, William H.,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다운 옮김, (서울: 비아, 2021), 18

¹⁰³ Ibid., 19.

자기의 조상들이 겪었던 쓰디 쓴 노예 생활과 광야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 빵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도망나와야 했던 그 때의 조상들의 신세를 기억하게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기 민족이 겪었던 특별한 스토리를 꺼내놓는 것이다.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식탁의 자리인 것이다.

이 식탁의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순한 회기가 아니라 그 과거의 특별한 스토리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들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친다.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 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 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 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 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 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 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 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¹⁰⁴

즉, 자신들의 조상이 겪은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철저한 권능이 계셔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민족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식탁에서는 철저히 가르침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부모는 스토리텔러가 되어 자식들에게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다.

온 세대가, 모든 사람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리.

이집트에서 벗어난 과거는 오늘이 되리.

"그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나 올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드리는 축제라고 설명해 주어라."¹⁰⁵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는 아이들은 질문하고 부모들은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가르침을 얻는 자리이다.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며 재앙이 넘어간 날이며 모든 식탁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던 이 절기가 그들에게 성스러운 자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이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임을 나누고 그 스토리를 나눌 때 다시금 새로운 스토리들이

¹⁰⁴ 출애굽기 13:1-10

¹⁰⁵ Willimon, William H.,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다운 옮김, (서울: 비아, 2021), 20

생기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월절을 만들어 간다.

그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하는 식탁과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니다. 그 스토리는 현재 우리에게도 특별한 스토리로 이어진다. 비록 우리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식탁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식탁에서 나누는 스토리들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분의 신실하심과 돌보심, 우리를 지키심을 가르치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2. 사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¹⁰⁶

‘제자의 배신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자신을 기념하라 사셨다.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¹⁰⁷

¹⁰⁶ 누가복음 24:30

¹⁰⁷ 고린도전서 11:23-26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깊은 의미의 스토리이다.

떡은 자신의 몸을 포도주는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보혈을 흘리실 사랑을 기념하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으며 후에 제자들과 이 스토리를 떠올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떡이라고 표현되는 빵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빵이 있기 전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심겨져 밭을 매고 밀을 추수하여 밀가루로 만들고 그 밀가루에 소금과 이스트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 빵으로 굽는 전 과정에서 흙과 농부,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이 모든 일상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거룩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일부를 주장¹⁰⁸하시는 특별한 스토리가 존재하며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와 나의 사랑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신다.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나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이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나눴던 식탁의 자리는 이제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었다.

¹⁰⁸ Willimon, William H.,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다운 옮김, (서울: 비아, 2021), 59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어나가셨고 그것이 특별한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식탁의 특별한 스토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며 우리의 스토리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자리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 식탁은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그 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배운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배우는 사랑이 아니라 체험적이며 구체적인 사랑이고 그 분의 임재를 기억하는 식탁의 자리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¹⁰⁹

3. 평등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 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당신네 선생이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예수님께서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¹¹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비난했으며 분노하기도 하였다.

¹⁰⁹ 요한일서 4:8

¹¹⁰ 유진피터슨,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5:29-32

그것은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한 이들은 한 군데 모일 수 없는 이들, 특히 사회에서 비난받고 멸시받는 이들이었다. 그런 모습이 이상을 넘어서서 기이하게 다가왔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이 충고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당시의 시대의 관습과 가르침을 넘어서는 변혁의 자리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의 자리였다. 예수님은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장소, 바로 식탁이라는 곳은 그러한 곳임을 가르쳐주셨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와 손잡은 악한 자였다. 하지만 이 자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듯 하신 말씀은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 나는 잔치를 열 것이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은 잔치의 기쁨만 누리면 되는 자리였다.

그것을 단순히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식탁에서 자신이 이 잔치를 열게 된 특별한 스토리를 말씀하시며 손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주셨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있는 스토리는 신분이나 구분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누구나 다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참여하는 공간이며 그것을 기쁨으로 참석하는 자리인 것이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 몸소 우리에게 식사를 하는 자리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자리임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그 자리가 억지로 우리가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쁜 자리이며 누구나 초대할 수 있고 배고파서 수치심을 느끼지도 차별과 슬픔을 느끼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다.

C. 식탁 공동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

레너드 스윗은 기독교의 위기는 식탁의 내려포를 회복하므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¹¹¹

그 이유는 식탁이 세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자리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며, 식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했고 인생의 이야기가 재생되며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¹¹²

그런 식탁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가 그 장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회는 있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¹¹³는 레너드 스윗의 말처럼 인간의 삶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을 나누고 형성해가며 전해지고 정체성을 찾아나가며 그것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재생시켜주는 식탁의 자리가 다시금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는 치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각 사람은 그 '존재의 중심에서 내려포(Narraphor,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을

¹¹¹ Sweet, Leonard I.,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고양: 예수전도단, 2015), 18.

¹¹² Ibid., 18.

¹¹³ Ibid., 18.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유(메타포)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갈망'¹¹⁴하는데, 그 갈망의 중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식탁 위에서 처음 세대들에서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거나 계층과 계층, 혹은 계층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로 전해져서 내려포를 전하고 그 내려포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각자 우리는 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며 배우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그 깊은 의미의 내려포를 전한다.

그리고 각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쌓아나가며 식탁 위에서 자신의 상황들과 어려움을 치유해 나간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강대상이나 설교를 통해 혹은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삶을 공유하며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은 다시 이야기가 된다.¹¹⁵

이와 같은 식탁 공동체에 앞장 서셨던 분은 예수님이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¹¹⁴ Ibid., 19.

¹¹⁵ Ibid., 20.

얻느니라”¹¹⁶

이 말씀 하나로 식탁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실천적 모습이 너무나 잘 설명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 받았던 이들, 소외되었던 이들과도 식탁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셨다. 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여정을 다닐 때에도 식사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런 식사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예수님과 이야기의 통해 치유가 되는 자리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음식을 사랑하셨지만 언제나 사람이 먼저였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느라 식사할 틈이 없으실 정도였으나 결국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와 식사예절, 즉 자신의 말과 같이 식사한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고 언제나 식사 공동체 속에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식사 시간을 노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다.¹¹⁷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서의 중심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 식사 공동체를 모으셨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¹¹⁸

¹¹⁶ 마태복음 11:19

¹¹⁷ Sweet, Leonard I.,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고양: 예수전도단, 2015), 20.

¹¹⁸ 요한복음 21:5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갖기 원하셨고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길 원하셨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형성되었을 때도 식탁 공동체는 늘 존재하였고, 그만큼 식탁 공동체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식탁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음식과 식사로 정의되는 식탁 복음의 구성원으로 식탁의 자리는 음식만 나누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삶을 나누고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텔링의 장으로 그곳에선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납으로 사는 법을 보이셨다. 식탁은 사람들에게 음식만 주는 곳이 아니다. 이야기와 추억으로 관계를 쌓는다. 상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의 기억, 특히 소리, 맛, 냄새, 질감, 모습 같은 오감의 기억을 말하면서 관계를 쌓는다. 이런 요소들이 메타포(은유)와 내려포에 해당한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음식 이야기가 전달되는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장래 모습과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¹¹⁹

레너드 스윗은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 얻는 오감에서 오는 메타포를 언급하며 그 기억들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이어짐을 말한다.

옛 어른들이 이삿날에는 짜장면을 생각하고, 기차에서는 계란과 사이다를

¹¹⁹ Sweet, Leonard I.,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고양: 예수전도단, 2015), 22-23.

말하는 것은 다 그런 의미의 메타포가 아닐까. 정서를 나누고 당시 시대를 나누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으며 그렇게 식탁 공동체는 이루어진다. 또한 그곳에는 따뜻한 기억들과 향수가 있고 그로인해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된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스토리를 공유하며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처럼 식탁 공동체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예수님과 식탁의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함께 먹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며,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리나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 예수님과 식탁 공동체를 누리고 이야기를 나눈 모든 이들 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락방에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혈육이 아닌 새로운 가족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식탁을 차려서 나를 기념하라.”는 뜻이고 그 ‘식탁을 차려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안에서’ 식사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메뉴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식 가족’이 되는 것이다.¹²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면 그 식사

¹²⁰ Ibid., 28-29.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식탁 공동체는 가족이 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아래 식사를 하면 가족이다하고 그 공동체가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식탁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혈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며 예수님의 사랑 아래 새롭게 묶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생겨나고 그 스토리들이 나누어지며 그곳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마음대로 먹어라.”(창 2:16)이며 마지막 말씀은 “마음대로 마시라.”(계 22:17)는 이 두 명령 사이에 식탁이 존재하고 그 식탁에는 삶의 식사가 차려지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먹고 마신다.¹²¹

더욱 특별한 것은 그 삶의 스토리가 있고 삶의 나누는 특별한 식탁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소한 것들이 펼쳐지는데 소외된 이들과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복음이 있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며 배운다라는 것이다.

그 특별한 자리에서 더욱 특별한 것은 소외된 이들만 대접받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여 대접한 이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된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식탁 공동체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넘친다.

¹²¹ Ibid., 32.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흔히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남을 이야기하거나 약속 할 때 '밥 한 번 먹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은 식사 자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일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그곳에서는 식탁의 자리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난다.

예수님의 식탁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당연히 적용된다. 하지만 하나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사역 스토리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과 현재에 하시는 사역, 그리고 미래에 하실 사역의 스토리이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탁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진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로서 식탁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고 가족을 이루고 가족들만의 스토리를 만드셨고, 그 식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단단한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스토리텔러가 되어 동참해야 하고 동참시키기를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연결시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스토리를 포함시켜 스토리의 내러포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 자체로 기념비적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속의 대서사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인생과 목숨을 걸 만 한 가치'를 갖도록 한다.¹²² 그 식탁 앞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그 분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며 누구든 상관없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며 은혜를 나누며 우리 모두는 치유된다.

예수님의 식탁에선 음식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나가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취할 것은 꿀보다 달콤한 스토리인 성경을 먹으며 나누게 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¹²³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¹²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유대 아이들이 히브리 학교에 들어간 첫 날 토라가 꿀보다 더 달다라고 배우며 12세기 유대 아이들은 토라를 처음 배울 때 토판 위에 히브리어로 “토라” 라고 적힌 꿀을 핥아 먹었던¹²⁵ 것 처럼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¹²² Ibid., 48.

¹²³ 에스겔 3:3

¹²⁴ 시편 119:103

¹²⁵ Sweet, Leonard I.,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고양: 예수전도단, 2015), 52.

스토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음식이며 그것이 채워지는 식탁이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로 가득한 식탁이다.

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무와 역할들이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각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¹²⁶

성경의 스토리로 채워진 식탁은 이런 우리에게 식탁으로 돌아가려는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본래의 감각을 찾아서 우리의 본래의 지어진 정체성을 찾아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자리로 나아와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삶의 스토리를 이어나갈 때 그곳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서 나누는 특별한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자아를 찾아나가고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찾는 과정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과 스토리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스토리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낸 출애굽의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내려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느끼고 깨닫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¹²⁶ 시편 34:8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애굽에서 노예일 때 그들을 구출해 낸 출애굽의 스토리는 그들의 식탁에서 음식으로 통해 전해지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스토리를 나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역할과 자리를 더욱 확실히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고 그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며 자신들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각자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식탁 공동체에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다. 그곳에서 나누는 스토리는 과거만의 스토리도 아니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의 스토리가 아닌 나의 스토리가 되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열린 식탁의 메시아”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식탁의 이야기” 이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음식과 식탁이 생각나며 식탁의 자리를 빼놓고선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¹²⁷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식탁을 개방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스토리텔러로서 특별한 스토리를 나누셨다.

특히 예수님의 식탁에는 세리나 죄인들, 육제적 장애를 가진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자리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등 흔히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나 쿰란 공동체에서도 이런 이들은

¹²⁷ Sweet, Leonard I.,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고양: 예수전도단, 2015), 71.

소외의 대상이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에 기록된 쿰란 공동체의 메시아 규칙서이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발이나 손이 마비되었거나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 연로하거나 비틀거리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질병이 있으므로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1QSa, 회중규칙서)¹²⁸

바벨론 포로기 이후 레위기의 내용이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레 21:16-24)¹²⁹

하나님을 믿는 집단에서도 배척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엄격한
식탁 규칙들을 뒤엎고 새롭게 규칙들을 세워나가신다.

그것은 ‘free’ 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새롭게 세우신 예수님의 규칙이고 예수님이 추구하신
식탁 공동체의 특징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식탁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다. 차고
넘치는 음식으로 소외된 자들과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스토리도 넉넉하게 준비하여 먹이시고 나누셨다.

¹²⁸ Ibid., 73.

¹²⁹ Ibid., 73.

현재의 식탁을 생각해보자. 혼밥이 만연한 식탁,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나 속으로는 차별이 만연한 식탁. 외로운 식탁에는 스토리가 존재할 수 없고 평등이 없는 식탁에서는 치유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특별한 스토리를 공유하게 해주어 우리라는 스토리를 새롭게 창조하도록 해주며 차별이 없는 열린 식탁에서는 치유를 얻게 된다. 그것이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치유의 식탁이다.

제 IV 장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 콘텐츠 구성의 실제

A.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식탁 공동체를 접목할 플랫폼과 콘텐츠 선정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플랫폼의 사용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깨우고, 플랫폼의 사용을 멈추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들을 말하며,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고 대화하는 ‘카카오톡’이라던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뉴스나 볼거리 등의 동영상을 통해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우리는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적으로 설계된 환경을 제공¹³⁰하며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무엇을 원하든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데이터, 브로커,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플랫폼 내부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고도 정밀의

¹³⁰ 변현지, 생산자-조직가의 매개체로서 유튜브 플랫폼 : 지식순환 네트워크와 대안적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문화연구학회*, 2019 37

내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플랫폼의 참여하는 이들의 활동이나 특성을 데이터로 환산해서 패턴화하여 명열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¹³¹

즉, 내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취향의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 기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보고 있고 또한 노출되어 있다.

모든 플랫폼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점들을 통해 플랫폼을 하나 선정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장 손쉽게 접하고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리텔링 하기에 용이하고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접근성이 쉬운 콘텐츠를 찾던 중 ‘유튜브’를 선정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려하고 글보다는 동영상이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스토리텔링이라는 특성상 문자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음향이 되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했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고 전세계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인만큼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¹³¹ Ibid.,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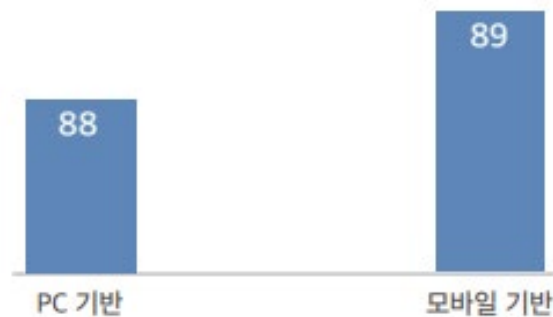
또한 유튜브는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수행성을 지니게끔하여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 참여를 독려하고 유튜브 시청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시청하며 언제든지 중단 혹은 ‘뒤로가기’를 누를 수 있어 시청자들이 선호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댓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유튜브는 손쉽게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주제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관련 콘텐츠도 제재가 있거나 거부감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다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유튜브 관련 통계를 나타낸 표이다.

유튜브, 대세를 타다 : 전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유무선)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유튜브로 동영상 이용률은 80%대 후반(모바일 통해 이용 89%, PC를 통해 이용 88%)으로 이제 유튜브가 대세라는 것을 보여준다.¹³²

〈표1〉 동영상 시청시 유튜브 이용 여부(%)



유튜브, 몰입력 매우 강하다 : 유튜브는 한 번 이용하면 자주 이용하는

¹³² 목회 데이터 연구소 <https://numbers1.cafe24.com/>

사람이 72%나 될 정도로 몰입력이 높은 매체이다.¹³³

〈표2〉 최근 유튜브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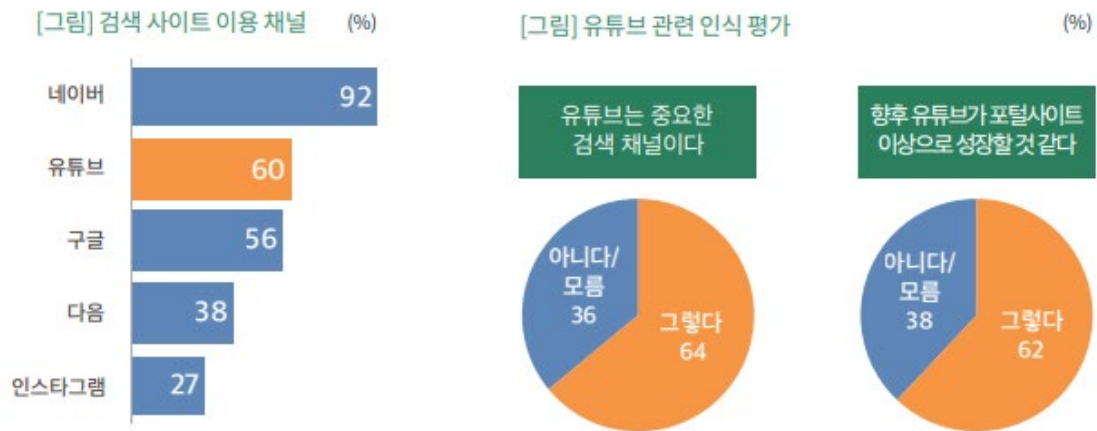


유튜브, 검색의 왕좌까지 노린다. : 유튜브 검색비율은 네이버보다 낮지만, 구글, 다음보다는 높고 유튜브 검색은 글과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보여줌으로 내용을 훨씬 임팩트 있게 전달함¹³⁴

〈표3〉 검색사이트 이용채널, 유튜브 관련 인식 평가

¹³³ 목회 데이터 연구소 <https://numbers1.cafe24.com/>

¹³⁴ 목회 데이터 연구소 <https://numbers1.cafe24.com/>



이렇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식탁 공동체를 통한 교제가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것은 당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적당할까를 고민해보았다.

현재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먹방, 쿡방 등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이냐라고 물었을 때 ‘배달의 민족’ 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성경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누군가의 스토리를 입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재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성경은 지루하다 교회생활은 따분하다라는 인식을 먹방이나 쿡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춰 접근하고자 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의 방식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브이로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공유함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 공감이나 대리만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콘텐츠 방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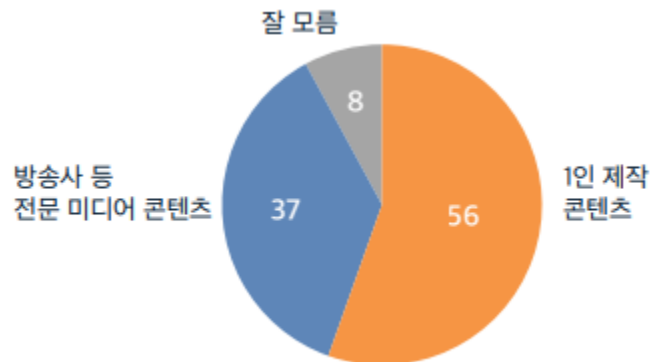
일상의 콘텐츠화 : 브이로그의 개인사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재미를 줄길 기회를 주며 ‘일상의 콘텐츠화’를 두루 퍼지게 한다. 또한 브이로그가 기존 미디어 콘텐츠와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일상의 콘텐츠화에 있고 사람들이 아마추어 구경을 좋아한다는 사실이다.¹³⁵

유튜브 다양한 경험 :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동영상 종류로는 전문가 집단의 콘텐츠보다는 개인 제작자의 콘텐츠가 더 많았는데, 이는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신과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줌¹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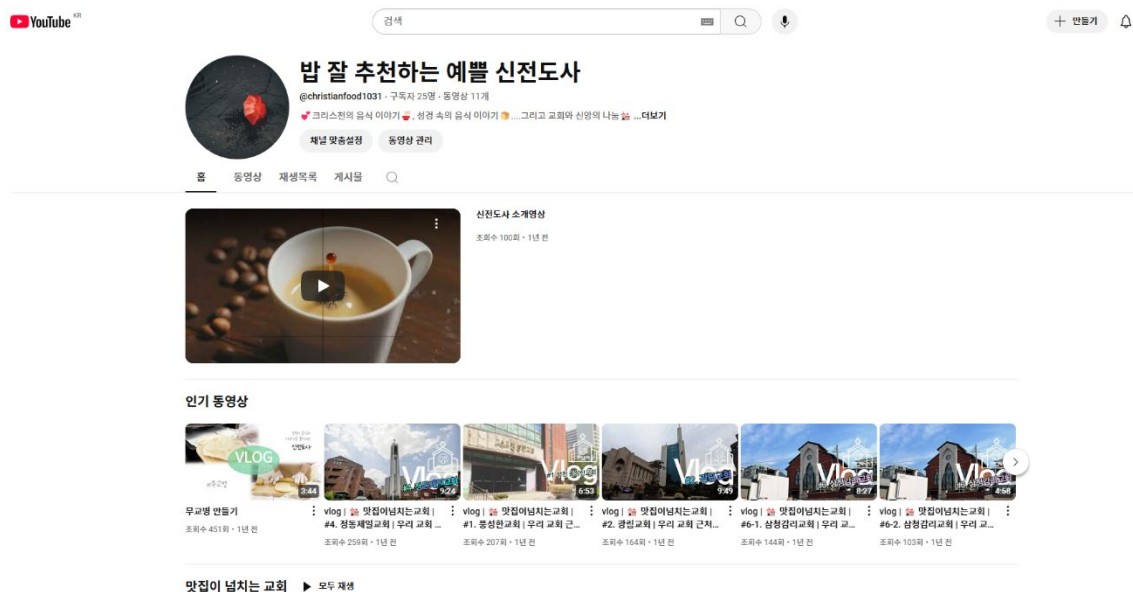
〈표4〉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 종류 (%)

¹³⁵ 전자신문, 콘텐츠 칼럼 브이로그와 일상의 콘텐츠화

¹³⁶ 목회 데이터 연구소 <https://numbers1.cafe24.com/>



유튜브의 힘, 소통 :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유튜브이므로 유튜브는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함(영상 댓글과 ‘좋아요/싫어요’ 기능, 답글, 게시자의 반응 기능이 소통의 기능 담당)¹³⁷



¹³⁷ 목회 데이터 연구소 <https://numbers1.cafe24.com/>

<https://www.youtube.com/@christianfood1031/featured>

B. 먹방 스토리텔링 - 맛집이 넘치는 교회

‘먹방’은 ‘먹는 방송’의 약자로 2000년대 초반 양방향 뉴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등장한 콘텐츠 중 하나로 콘텐츠 생산자가 특별한 내용이나 장치 없이 일상의 식사 장면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시청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¹³⁸

먹방은 다른 사람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청하는 콘텐츠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이다.

이런 먹방이 인기가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 속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삶을 반영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먹방을 함께 시청하며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를 겪는 이들과 가상적 일상 생활의 공동체를 구축하며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사회를 반영하고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¹³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젊은이들의 현실을 반영하게 된 먹방 콘텐츠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콘텐츠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맛집에 열광하고 줄을 서서 먹으며 그런 맛집을 탐방하며 먹방을 하는 것은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곳에 기독교적 색채를 녹여내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의 삶의 공유와 기독교적 메시지를 이미지와 영상화

¹³⁸ 조은하, 먹방의 유행과 문화현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20, 69

¹³⁹ Ibid., 68.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콘텐츠 안에 CCM이나 교회의 이야기, 교회 근처의 맛집이라는 소재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일상의 묵상 내용, 혹은 성경 구절을 통한 영상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먹방과 지역의 이야기들과 함께 접목시켜 크리스천의 삶도 비기독교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재미있는 소재와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의 공감과 찬양, 말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혼밥과 젊은이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인기를 얻었던 콘텐츠인만큼 늘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찾아 식탁 공동체를 만드시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식탁을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가는 스토리와 먹방으로 함께 소통하며 신앙교류를 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콘텐츠의 이름은 “맛집이 넘치는 교회” 이다.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나 전도사들을 통해 교회 주변의 맛집들을 추천받아 영상을 제작하였다.

교회 생활에서는 식탁 교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주변의 맛집을 추천받아 콘텐츠를 만들면 정보도 줄 수 있고 또한 맛집의 먹방도 나눌 수 있다.

맛집이 넘치는 교회 ▶ 모두 재생



vlog | 🏰 맛집이넘치는교회 |
#6-2. 삼청감리교회 | 우리 교...

밥 잘 추천하는 예쁜 신전도사
조희수 103회 • 1년 전



vlog | 🏰 맛집이넘치는교회 |
#6-1. 삼청감리교회 | 우리 교...

밥 잘 추천하는 예쁜 신전도사
조희수 144회 • 1년 전



vlog | 🏰 맛집이넘치는교회 |
#5. 이화부속 이화금관고등학...

밥 잘 추천하는 예쁜 신전도사
조희수 94회 • 1년 전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오늘의 묵상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기독교교육에 대해서



C. 성경 속 음식 스토리텔링 - food in the Bible

‘쿡방’은 요리하다(cook)와 방송의 합성어로 요리를 하면서 조리법도

알려주는 음식 관련 콘텐츠이다.

쿡방은 먹방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가족 단위에서 개인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즐기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점차 대중문화로 확대되어 최근에 여러 가지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조리방법과 재료 등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그릇에 담아내기도 하고 음식하는 소리도 생동감있게 넣어 시청각의 다양한 활용으로 요리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쿡방을 스토리텔링과 접목시켜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 꽤 흥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는 곳에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쿡방을 본다면 좀 더 사람들이 흥미있게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다.

콘텐츠 이름은 food in the Bible이다.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이나 혹은 여러 책을 통한 레시피를 가지고 성경을 스토리텔링하며 만든 콘텐츠이다.

food in the Bible ▶ 모두 재생

성경 속의 음식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누는 음식들,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하며 만드는 음식, 성경 속 음식 레시피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 재밌게 만나는 시간



렌틸콩 스프 만들기

밥 잘 추천하는 예블 신전도사
조회수 90회 • 1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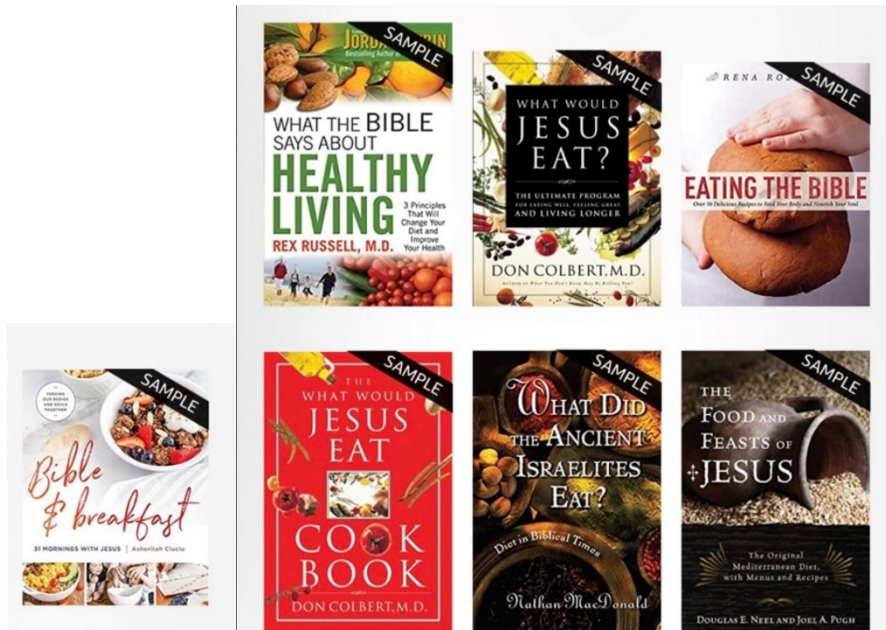
에덴동산샐러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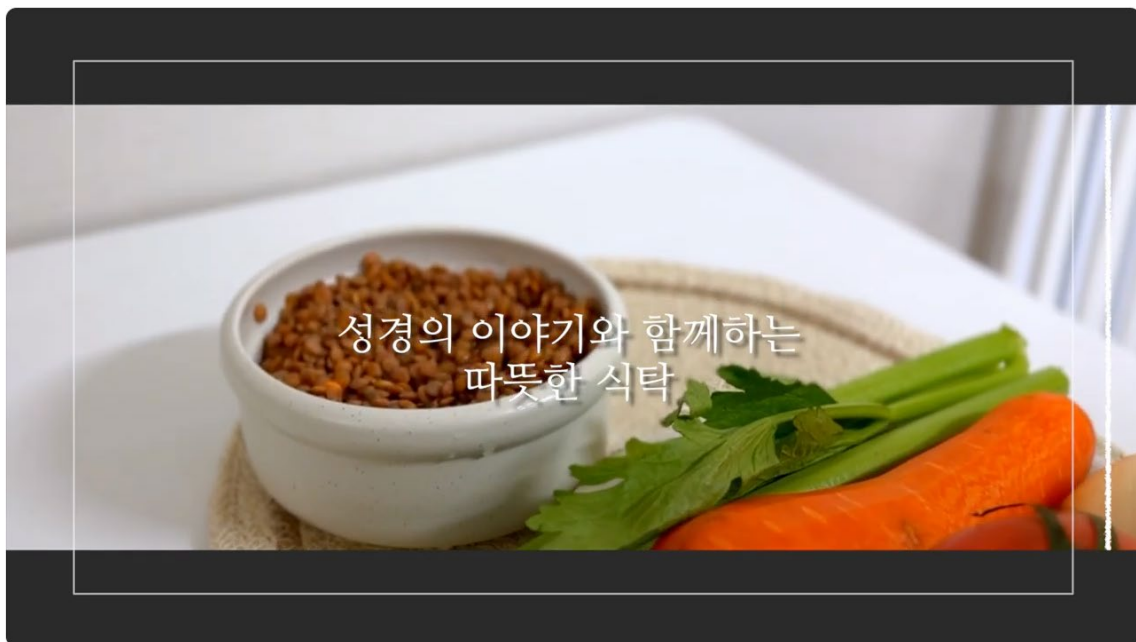
밥 잘 추천하는 예블 신전도사
조회수 51회 • 1년 전



무교병 만들기

밥 잘 추천하는 예블 신전도사
조회수 451회 • 1년 전







1. 무교병 만들기

무교병은 성경 속 음식 중에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음식이지만 직접 해 먹는 경험은 거의 드물고 무교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교병에도 종류가 있으며 무교병 만들기 콘텐츠를 통하여 누룩의 의미나 그 레시피를 직접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 맛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며 만드는 방법도 쉽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그 맛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무교병을 만들면서 함께 스토리텔링하는 유월절의 의미와 그 스토리를 들으며 유월절의 의미도 되새기면서 무교병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공동체 식탁의 의미 자신만의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는 식탁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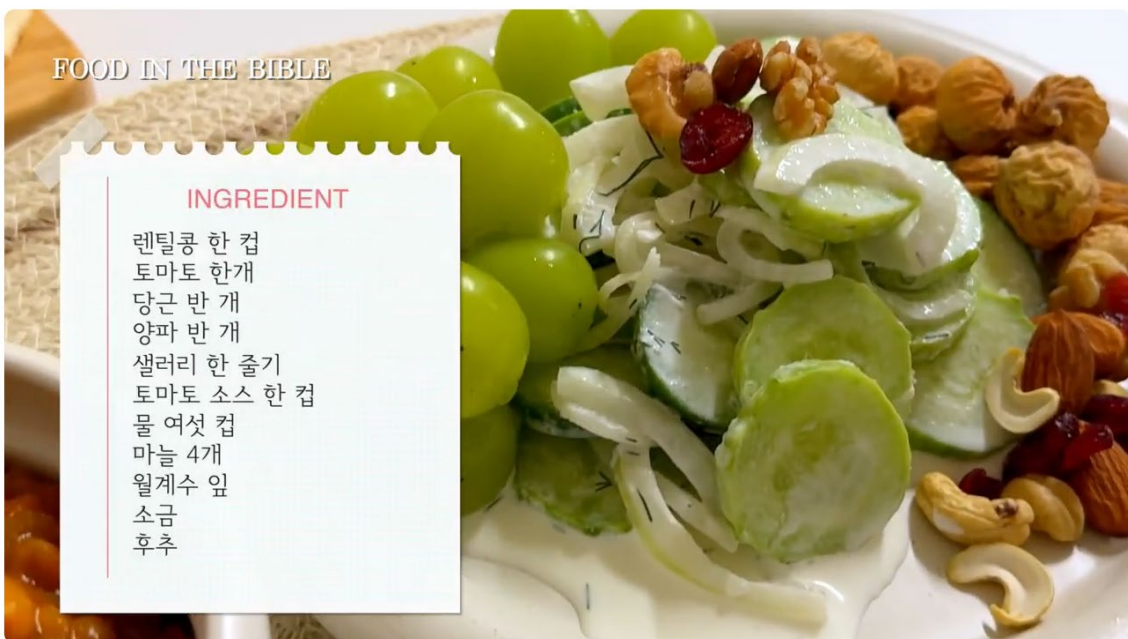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यो 레위기 2:4

FOOD IN THE BIBLE

알맞은 크기로 잘 나누기

그들을 출애굽 시키기를 명령하시고, 그들을 못나가게 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







2. 렌틸콩 스프 만들기

렌틸콩 스프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주었던 성경의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음식이다. 우리가 팔이라고 알고 있는 붉은 곡물은 실제로는 렌틸콩이며 그것을 스프로 만들어 먹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렌틸콩 스프를 감기에 걸렸을 때 먹었는데, 그 스토리를 활용하여 야곱과 에서의 성경 이야기와 렌틸콩 스프에 대한 문화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였다.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쿡방을 보면서 그 음식을 해 먹고 자신의 스토리로 만든다면 특별한 식탁 공동체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29



3. 에덴동산 샐러드 만들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에서 착안하여 eating the Bible에 나오는 레시피를 SNS상에서 유행하는 샐러드 레시피와 접목하여 아이디어를 냈다. 성경시대에 그 지역에서 나는 무화과나 포도, 견과류를 곁들여서 요리를 하고 에덴동산의 성경 속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였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풍부한 먹을거리를 생각하며 스토리텔링하였다.

D.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 콘텐츠 구성 계획과 프로그램

1. 딜리버리 스토리텔링 - 배달의 제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그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고 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밥 문화와 빠르게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 바쁜 일상 가운데서 배달이라는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착안하여 예수님의 스토리를 배달하는 ‘배달의 제자’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 존재할 것이다.

이 콘텐츠는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음식과 스토리를 배달하는 콘텐츠이다.

그 스토리는 성경의 스토리에 기반한 것으로 자신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도 좋고, 자신이 인상깊게 들었던 성경의 스토리도 가능하다.

그 스토리를 통해 나누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편집하여 동영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이용해 게시하는 것이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진행해보았다.

Food in the Bible이라는 콘텐츠에서 만들었던 렌틸콩 스프를 만들어 같이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 쌀쌀한 계절을 맞아 야곱의 스토리와 감기에 많이 먹었다는 당시 문화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딜리버리 하였다.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딜리버리를 하면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 공동체의 나눔도 함께 누릴수 있으며 그 가운데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 공동체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지역적인 한계나 제작의 한계점도 존재할 거라고 예측해본다.

하지만 여러가지 한계점을 보완해서 성경의 스토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어디든지, 어느 누구와 식탁의 자리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나가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V 장

결 론

A.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본래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졌던 성경의 원래의 전달 방법을 통하여 성경 속 가르침이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전달 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말씀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던 식탁 공동체를 연구하여 스토리텔링과 식탁 공동체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 식탁 공동체에서 성경의 스토리텔링이 공존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스토리의 전달과 가르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식탁 공동체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의 과정이 일어날 것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용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본래 성경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토리텔러가 되어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과 독특한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스토리텔링의 전달하는 장소로 미디어를 선택하였고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스토리텔링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연구하고 유튜브 플랫폼 선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혀보았다.

3장에서는 식탁 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식탁 공동체를 연구하기 전에 공동체의 용어를 알아보았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식탁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 어디서 식탁 공동체가 유래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성경 속의 식탁 공동체를 통한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식탁 공동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요즘 인기가 있는 먹방과 쿡방을 소재로 성경과 교회 생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해 보고 가상 공간에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식탁 공동체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딜리버리라는 소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계획도 제시해보았다.

B. 제언과 결론

‘천일야화’라고 잘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에서는 샤하라자드라는 여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자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었고 그 스토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토록

스토리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스토리의 힘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토리텔러로서 말씀하신다. 유일한 스토리텔러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유일한 스토리리스터로서 그 분의 명령과 그 분의 특별한 스토리에 동참하여 다시금 그 분의 스토리를 전해야 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문자적, 객관적, 과학적, 해석학적 이라는 말 속에 묻혀 스토리는 그저 허구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처음 글자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 본래의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의 지혜를 얻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식탁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받아 식탁 공동체 위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스토리로 자리를 채워나가기 바란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성경적 관점으로 한 식탁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은 스토리를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지털스토리텔링이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도 샘플로 몇 개의 동영상 올린 상태에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디지털스토리텔링의 한계점은 물론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식탁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놓치는 점도 있으며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혼자 운영하기 어려움도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장점은 분명히 있으며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성경의 식탁 공동체의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특별한 스토리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평등과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재현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경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어 서적

Craig R. Dykstra,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osville, KT: Geneva Press, 1999

번역서적

Gowler, David B., *최근 예수의 비유 연구 동향*, 김세현 역, 서울: CLC, 2015

Sweet, Leonard I.,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고양: 예수전도단, 2015

Willimon, William H.,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겨운 역, 서울: 비아, 2021

Willis, Avery T., *성경스토리텔링*, 김연수 · 김택주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5

한국어 서적

구제홍 · 김선정, *예수의 비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김호경, *예수가 하려던 말들*, 서울: 도서출판 뜰힘, 2022

변민주,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서울: 해냄, 2014

조은하,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북스힐, 2008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고경민,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동영상 콘텐츠의 한국문화교육활용에 대한 일 고찰,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4집, 2017

권도훈, 레위기 4-5장을 중심으로 한 속죄제와 화목제 연구 동향 분석의 의의, *제명대학교*, 2023

김대묵, 예수의 밥상공동체에 나타난 공동체 형성 모색,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석사과정*, 2006

김덕기, 예수 비유의 서사성, 은유성, 상징성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모델 형성 :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막 12:1-8)를 중심으로,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 문화*
Vol.8, 1999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 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신학과 세계 제75호*, 2012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제91호*, 2017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제자가 되고 친구를 찾아서, *신학과 세계 제 94호*, 2018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신앙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써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제81호*, 2014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성경 스토리텔링,
신학과 세계 제96호, 2019

박자현, 스토리텔링과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변현지, 생산자-조직가의 매개체로서 유튜브 플랫폼 : 지식순환 네트워크와 대안적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문화연구학회*, 2019

양금희, 성경 속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하기 방법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Vol.50 No.2*, 2018

양승준, 교육의 장으로서 공동식사의 함의-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47집*, 2016

조은하, 먹방의 유행과 문화현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20

최진환, 식탁교제를 통해 살펴본 누가의 삶의 자리, *감리교신학대학교*, 2013

웹사이트

전자신문, 콘텐츠 칼럼 브이로그의 일상의 콘텐츠화

목회데이터연구소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Jaejin Shin

Place and Date of Birth: Incheon, South Korea, July 31, 1981

Parent's Names: Seokin Shin and Junghwa Ka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ugae Girl's High School 433, Buheung-ro, Bupye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5, 2000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18, 2010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Feb 15, 202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aejin Shin

Name typed

March 1, 2025

date